

등투쟁극면

대중적인 투쟁으로 방향 전환

오는30일 서울·경주합동 '등투승리결의대회'등 개최 경주 학생 상경 총장실 점거·예대 학생회 단식 농성

등록금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총선과 관련되어 그동안 투쟁방향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총학 운영위원회내에서도 각단위 학생회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해 학생들의 학생회 불신등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등록금 투쟁이 서울캠퍼스 총학 운영위원회가 총선이후 일정과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경주캠퍼스 총학회의와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늘(25일) 접지중인 재단이사장실에서 열린 '제19차 서울·경주합동 중앙운영위'에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고조되어왔던 등록금 투쟁 열기가 상층에서만의 논의로 흘러 학우들에게 등투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의 대중적인 평가와 선전기구의 체계화를 통한 보다 대중적인 등록금 투쟁으로 넘어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오는 30일 도서관앞에서는 경주에서 상경한 학생들과 함께 '등투 승리를 위한 2만 동학인 결의대회'를 벌일것과 4월초 학교발전을 위한 제

단·학교당국과의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어 힘있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2시 경주 제9대 총학생회장 진중근(철학4)군을 비롯한 경주캠퍼스 18명의 학생들이 상경해 서울 총학회의 이광필(전기4)총학생회장등 학생 50여명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등록금 투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재단혁신 방안제시' 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예대(학생회장=김병정·미술)학생 1백50여명은 '등투승리를 위한 예술인 합대지기대회'를 개최하고 학내 선전전을 벌였다.

이 집회가 끝난뒤 예대 학생 50여명은 본관앞에서 '학년기준제 폐지' 등의 요구사항을 페인트로 쓰고 김학생회장과 미술학과, 연극영화과 학생회장은 본관앞에 막사를 설치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관련인터뷰 7면)

민중, 회원의날 개최

'제1회 동문회원의 날'이 민중동문회(회장=신경림·영문58)추진로 지난 21일 오후5시부터 세미나일(학생회관 2층)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주캠퍼스에서 상경한 학생18명은 25일 '재단혁신'을 요구하며 총장실점거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민중동문회 총회와는 별도로 진행된 것인데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인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 행사를 준비한 민중동문회의 한 실무간사는 "3개월마다 동문회원의 날을 가지면서 협력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매년 강연회를 개최해 뜻깊은 자리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오늘의 인권현실과 강기훈씨 유서사건의 진실'이란 주제로 서준식(전민권인권위원장)씨가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지금까지 사건의 경과와 원정권의 왜곡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어 민중동문회 소모임 노래매 '비나리'의 공연이 마련돼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한층 빛냈다.

이날 강연은 '오늘의 인권현실과 강기훈씨 유서사건의 진실'이란 주제로 서준식(전민권인권위원장)씨가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지금까지 사건의 경과와 원정권의 왜곡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어 민중동문회 소모임 노래매 '비나리'의 공연이 마련돼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한층 빛냈다.

제8대 대학원 학생회 출범식 연구환경 개선에 주력

신보적 학문공동체로 / 동국발전의 추제로 / 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8대 대학원학생회(회장=김대중·행정3) 출범식이 지난 20일 오후4시 원생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리수(다량관2층)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학내외의 내빈으로 하덕모(식품공학)대학원장을 비롯한 보지 교수들과 전국대학원 학생대표자협의회장, 숙대 대학원 학생회 부외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중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동국의 학풍을 건설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이제까지의 개별적 연구를 지양하고 학문공동체라는 공동의 장에서 함께 연구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8대 대학원 학생회의 사업방향은 등록금투쟁의 강화 및 현시기 열악한 연구환경 등 토대개선에 주력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출범식신포를 끝으로 1부순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지난 10일 본고 전 재단이사장 황진경스님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교육부는 황씨 이사취임을 승인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임시부장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육부가 황씨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이에대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진경스님 '이사승인'판결
교육부 상고여부 귀추주목

등록금문제등 협조 요청 교수회, 구체적 대안 마련 없어

등록금협상의 조속한 매듭을 짓기위해 학교당국은 교수회 대의원들과 오찬을 지난 23일 오후 5시 서울(교리)에서 서로의 의사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학교당국의 등록금협상실무대표 조희명(경영

학)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 7차례 걸쳐 학생측과 진행해온 내용들을 보고하고, 민병철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교수회의 협조를 구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수회 대의원들은 등록금협상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해 학교당국의 입장

들은 차원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김장호(국어교육)교수회장은 "학기초부터 학교당국과 학생측이 등록금문제로 마찰을 빚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교수회 또한 아직 판여 할만한 시기가 아니라 판여 해 이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임을 밝혔다.

학교당국 또한 이날 자리의 성격은 현시기 학교운영의 여러문제점을 공유하는것과 함께 서로의 상전례를 통한 이후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했던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물론 학생측이 주장하는 재단혁신을 통한 전입금의 확충은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족한 학내공간문제 해소, 실험실습비의 확충을 비롯 학내조정금리의 효용을 기해 면학할 수 있는 재원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는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슬링부 김선학군
올림픽 출전 자격**

본교 레슬링부(감독=메기)소속 김선학(체고1)군이 지난 23일 92바르셀로나 올림픽과전 테슬링국가대표 최종평가전 자유형 52kg급에서 정상을 차지해 올림픽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김군은 이날 신갈레슬링체육관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상대 김우룡선수수를 태클과 옆굴리기로 3점을 따내 태클로 1점을 만회하는데 그친 김에 3대1 판정승을 거둬 대표자리를 지켰다.

특히 최연소국가대표선수인 김군은 올림픽대표선수승 유력한 대학부소속으로 눈길을 모았다.

황진경스님 '이사승인'판결
교육부 상고여부 귀추주목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지난 10일 본고 전 재단이사장 황진경스님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교육부는 황씨 이사취임을 승인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임시부장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육부가 황씨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이에대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진경스님 '이사승인'판결
교육부 상고여부 귀추주목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했던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물론 학생측이 주장하는 재단혁신을 통한 전입금의 확충은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족한 학내공간문제 해소, 실험실습비의 확충을 비롯 학내조정금리의 효용을 기해 면학할 수 있는 재원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는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연소국가대표선수인 김군은 올림픽대표선수승 유력한 대학부소속으로 눈길을 모았다.

본사사령
○임 기자
▲전미영(농과대 농생2)
▲박선경(인문대 국문2)
▲한은주(상경대 야간생2)
(이상 3월25일자)

신문배포가 늦어진대 대해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음 신문(1096호)은 신문사 일정판례로 한주됩니다.

보수

지난 주에는 과 학생들과 함께 고지답사를 다녀왔다. 이 답사는 역사교육과의 필수적인 연중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답사는 4학년이 주체가 되어 탁본실습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탁본이란 石物이나 금속물에 새겨진 글씨나 문양 등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흰 종이 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리가 깊은 묘미를 지니고 있어 탁본의 참 뜻을 다 시금 되새기게 한다. 즉 탁본의 방법에는 음각과 양각

탁본(拓本)

감동을 받는다. 대승불교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 보살행은 '上求菩提 下化眾生'이라 한다. 이는 문자 그대로 위로는 보리(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동시에 실천해야함을 보살의 근본자제로 정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자利利他的의 실천에 의한 자기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타인과 의 상관관계에 의한 자기완성이 불교의 지상목표임을 알게 한다. 마치 좋은 탁본을 이루고자 한다면 조각된 글씨나 문양 자체 보다는 그 주위를 고르게 두들겨 조화를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원리와 같다.

이상을 불교사상에 접목시켜보면 緣起法이라 하였는데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相依相性 相輔性이라 하고, 이는 인간생활의 주변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은 마침 선거를 앞두고 있어 많은 입후보자가 하나같이 열변을 토하면서 利他行을 강조한다. 그런데 원일인지 그들이 외치는 이 타행의 약속이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감동조차 일지 않으니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탁본실습을 끝으로 1부순

정보문화의 꽃-PC통신



한국통신, 한국경제신문사 등 14개 회사가 힘을 모아 PC통신 전문회사인 한국PC통신(주)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차원높은 PC통신을 실현, 이용자 여러분에게 생활속의 편리함을, 기업에게는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문화의 꽃 뉴스, 증권, 날씨, 여행, 연세소설, 바둑, 홈쇼핑,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방에 앉아 넓은 세계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멀리 떨어진 친구 또는 취미가 같은 미지의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BBS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PC통신의 세계 PC통신은 여러분이 가진 컴퓨터와 저희 회사의 시스템이 공중전화망을 통하여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저희 회사는 보다 원활한 접속과 통신 환경의 안정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통신회선도 현재의 1,200 회선에서 7월까지는 3,500 회선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정보문화의 확산 한국 PC통신은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5월부터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유료화와 함께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용자 여러분은 매뉴얼에서 번번히 누르던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의 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가입안내

한국 PC통신이 여는 미래로의 초대에 함께 하시려면...
●이율료: 월 9,000원 (정액제, 부가세 별도)
●가입방법: 온라인, FAX, 우편, 방문
●자세한 사항은 TEL: 511-4931-4 로 문의바랍니다.



한국PC통신
Korea PC Telecom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B/D 7-10층

사설

불교계 정권유착 자성하라

조계종 서의현총무원장의 김영삼민주당대표 지지발언과 민자당 선거운동의 지원이 불교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불교가 권력의 시너를 자청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서원장은 지난달 29일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법회'에서, 87년 대선 당시 "정와대에 찬송가가 울려퍼지게 하겠다"며 기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 했던 당사자를 일컬어 "6개월째 비난을 감수하면서 3당합당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신 분"이라고 극찬하는 등의 발언을 해 불교계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승가대학은 지난3일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이어 10일 서명 작업, 18일 총무원 정거동성에 들어갔으며 본교도 불교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다.

86년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부터 자적문제도 시비가 일었던 서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본분을 벗어나 YS지지 발언, 경남·북 여당부주최원운동을 파는 등 그동안 권력과의 유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6개월째 접어든 조계종 분당사태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불교계의 한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계주발언을 둘러싸고 불교계는 서원장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를 넘어 그동안 정권과의 유착으로 결집됐던 한국불교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에 대한 권력의 회유와 탄압은 일제시대 이후 오늘에 이른다. 타종교에 비해 가장 민주적이고 반외세적이며 사회참여적인 불교가 일제-미군정에게 '눈에 가시'로 인식된 것은 당연했다. 해방이후 미군정은 반민족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승려들이 불교를 장악할 수 있도록 획책하는, 교묘한 종교정책을 사용해 오늘 날 불교계가 문중·파벌싸움의 온상지로 전락하는데 한 몫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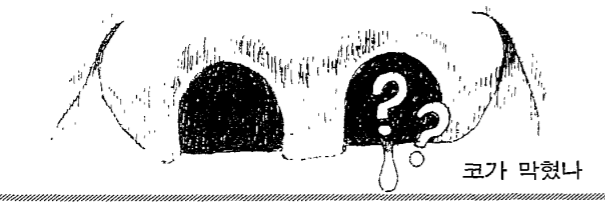
죽 연례행사가 된 종단분규는 권승들의 종권장악욕에서 비롯됐지만 해방이후 이들 권승들을 재생선하는 구조를 만든 권력·외세의 불교탄압이 근본적 원인이 된 셈이다.

과연 조계종 불교계 지도자들이 불교적 이념에 충실한 지도방향을 정하고 포교사업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사리사욕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가.

80년 10월27일 새벽, 군인들이 전국사찰을 급습, 불교승려와 신자 1백80명을 연행해 이중 28명을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의 종교탄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10·27법난'을 겪고도 오히려 권력에서 물러난 승려의 전 전대통령의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준 불교계의 처사는 실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나 불미스러운 풍경을 연출한 장본인이 바로 서승무원장이었다.

오늘날 한국불교 조계종은 위기상황이 아닌 과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조계종의 구조적 모순이 본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데 있다. 교수들의 어떠한 정치개혁적 발언이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응하는 조직적인 행동이 타종교에 비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은 정권의 불교탄압정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등록금투쟁에서 학생회가 추구하는 제단혁신이나 등록금 휴지, 불교의 정권유착관계에서는 요원한 과제라고 본다면 본교 출신 승려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불교정화운동이 현실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때다. "이제 부처가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지적한 한 스님의 말처럼 진보적 불교의 모습은 먼저 본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코가 막혔나

목격글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경남이형의 생일을 무전장 많이 축하합니다. -林 '91 사랑하는 후배가
■상인이형의 스물아홉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철만동생 '92 박동규
■벤츠하고 와이드한 집단생생과 학생회장 상인이형 귀면이전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수현
■순수하고 진솔한 순진이의 귀빠진 날을 축하하며 항상 첫 고성처럼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가) 다오. -천구일동
■92학년 조용, 송세현, 91학년 오보근, 89학년 경호, 성근이의 생일을 새삼스럽게 축하한다. 언제나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당당한 청년이 되길... -사회평
■경신이언니 생일을 축하합니다. C·C인 인성이 오희랑 재빨리 싸우지 마세요. -선화과 후배 깡뭇가
■예쁜 지영아 생일 축하해.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 -선화과 '91선배가
■윤리과 경부랑 일문과 경희는 꼭 자매 같아요. 애들의 생일이 24일이예요. 축하합니다. -문과대 문화부장
■인속사연구회의 신입회원 조성식(정제 1)군의 귀빠진 날을 축하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라. -'90 '91 선배가
■중장이형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효! 율해엔 기쁨도 용 되세요! -수니가
■화학과 2학년 북학상 선배님들(송준, 학범, 성준, 덕현, 현진, 호형)의 새하기를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원조현(?)
■축하한다
12월부터 준비하느라 애 많이 썼다. -현여울산공 '91

열린글터

황무지 되어버린 잔디밭 정성스레 가꾸자

올해도 어김없이 신입생들이 교정을 오가고 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교정은 어떤 모습인가. 근대근대 모여다니지 않아야 하는 모습들과 또 한층 구석에서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하는 것을 우리들은 흔히 볼 수가 있다. 요즘에도 이런 풍경은 우리의 눈에 자연스럽게 보인다. 우리 작은 쉼터 한 구석이 남아 있어서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 상술 야속하기만

어느 대학가보다 성경동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대학을 갖게 되면 신입생들도 느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폭풍이 닥쳐오기까지 이르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대학가 주변 상술이 야속하기만 하지는 않겠다. 성경동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대학을 갖게 되면 신입생들도 느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폭풍이 닥쳐오기까지 이르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대학가 주변 상술이 야속하기만 하지는 않겠다.

대학가 주변 상술 야속하기만

이런 문제들을 그냥 간과할수만은 없기에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먼저 우리의 작은 힘을 하나로 모아 집단적인 불매운동과 양과질, 낙후된 시설등의 개선요 구하고 교내서점의 경우 학생들의 직영화 문제를 검토해보는것이 어떨까? 이제 더 이상 동국인이 경주시민의 '봉'이 아님을 그들의 머리속에 각인시키며 그동안 먹고 마시는 문화에만 젖어있던 학생들을 학문으로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보자.

교육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이야

얼마전 대학안내자를 같이 읽던 후배가 문득 "어? 우리학교에도 박물관이 있네요?"라며 뭔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나에게 물어왔을 때 우리학교 박물관이란 곳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안내책자에 나오는 그대로 유물 몇천점을 갖췄다는 박물관의 현재 위상은 과연 어떨까? 학교를 몇년씩 다니고도 학교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나, 아직까지 한번도 박물관 이용을 해본적이 없다는 학생들을 볼 때 그들이 단지 전공과 무관하기 때문에 혹은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인지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책포장안하기 운동

요즘 시나 대학서점에서 보면 국문정착운동의 일환으로 유일한 서비스트였던 책포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지 몰라도 나는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직접 서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책포장을 안해주는 것이 서점경영에 평정한 도움을 준다는 대답이었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실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과소비 줄이는데 한몫

요즘 시나 대학서점에서 보면 국문정착운동의 일환으로 유일한 서비스트였던 책포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지 몰라도 나는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직접 서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책포장을 안해주는 것이 서점경영에 평정한 도움을 준다는 대답이었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실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책포장안하기 운동

요즘 시나 대학서점에서 보면 국문정착운동의 일환으로 유일한 서비스트였던 책포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지 몰라도 나는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직접 서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책포장을 안해주는 것이 서점경영에 평정한 도움을 준다는 대답이었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실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과소비 줄이는데 한몫

요즘 시나 대학서점에서 보면 국문정착운동의 일환으로 유일한 서비스트였던 책포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지 몰라도 나는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직접 서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책포장을 안해주는 것이 서점경영에 평정한 도움을 준다는 대답이었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실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초대서

새벽 바다

이 미 자 (인문대 국문과)
첫빛 거울의 기억이 어슴프레 밝아오는 새벽
깨우치지 못할 진리의 심을 찾아 알몸으로 너를 만난다
시대의 거센 바람이 심장으로 파고들고
스무살 고인 어린 분노가 고향처럼 잠든 물결을 일깨우면
오허려, 세상은 고요하고 잊혀진 것들이 잔잔히 파도치고 있을뿐
부끄러운 메아리로 되돌아 오는 허허로운 몸짓 잡채우고 서러움으로 나무껍고 서있으면
모든 사상과 이념의 파도를 넘어 아침의 커튼을 드리우는 바다여, 승고한 영웅의 넓이어 오늘 너의 가슴에 휘파람을 불고 싶다

※1992년 인문대 국문과 신입생 백일장 장원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임승만 씨

11년째 중앙도서관에서 1.5명 남짓한 구두수선가게를 운영하는 임승만(59)씨. 근래와서 구두를 수선해 주는 사람이 드문데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잘 아는 단골이 아니면 이곳을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덕분(?)에 평소 하루 예닐곱명의 단골 손님들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원래 임씨는 환경남도 '홍남'에서 선반기술학교를 다녔으나 이복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구할수가 없어 23세때부터 구두일을 배우게 된것을 동기로 이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매달 임대료 내기에도 빠듯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이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도 나를 잊지않고 찾아주는 학생들과 단골직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착,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정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시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걱정이라는 그이지만 구두를 고치는 손놀림만은 손때가 묻어 반짝거리는 그의 연경처럼 저절로 웃었다. (조용수 기자)

동학! 광장

축하합니다
■P·T·P의 성공적인 일일맞춤을 축하하고 21기 어려운 파이팅! -양배추인형
■법과대 형사법학회의 발족을 축하합니다. 형사법학회는 320여 법학도와 함께 25일 성대히 발족식을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형사법학회 창당발기인
■수고하셨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용맹스런 너의 규범으로 알찬 M.T가 되었구나. -동불일동
■불교학과 학생회실 환경정리하시느라 수고하신 92학년 대표이하 여러 후배들에게 감사와 수고의 말을 전합니다. -'91선배 창
■농생과 여러분! M.T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농생 '91
■환영합니다
■구룡도가에 새로 들어온 화학과, 지교과, 수교과, 국교과, 행정학과, 물리학과, 새내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달
■아리랑 92학년 새내기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추후, 정애, 현태, 주리, 우석, 유정, 기석, 지영, 태동 등 모두모두 열심히 생활합시다. -랑'90 현내기가
■아름다운 대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올라운 많은 KUSA신입회원들은 정말 멋져요! -H.J.
■책꽂고 출신의 92학번들 환영합니다. 곧 날 잡을게요. 잠깐만요. -K.T.W.
■사랑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 찾아온 성동, 세정, 민혜의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젊은새이웃
■알립니다
■계동대 대원회도 동문회가 27일 오후5시 만해시비 앞에서 있습니다. 선후배 모여
■4기 동맹선배
■고향향우회에서 알립니다. 다음 모임(5월)에는 국교과 '92 조연중씨 꼭 나오세요. 다른 사람들이 깨물어 줄거니까. -'91
■"동학인 여러분! 용원을 배워봅시다"
■신입생 환영행사 및 후원지도
·일시:3월31일 늦은3시부터
·장소:만해광장
·주최:동국대학교 백상승원단(Action, Vocal)
■그리고...열심히 하세요
■인절과 신승아! 열심히 생활하구라. -Y.J.
■회개하는 타잔아저씨의 건강하고 밝은 한해가 되기를 제언이 바랍대요. 우리 만남이 영원인걸 알죠? -늘 따스하게 지켜보는 제언이
■인도철학과 새내기 예쁜이들아! 학문의 길에선 학형으로 세월의 흐름에선 슬한건의 친구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라울라
■사랑스럽고 이쁜 현미야! 열심히 생활해라. -영원한 팬
■조소는 하나이다/
■"반란의 깃발을 이어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이복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아닙니다. 이복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대우동장 스탠트룸에서 기다립니다. 새내기 환영이란 오십시오.
■대권후보를 찾습니다
인민군을 아십니까? 바로 몸짓에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회장님이십니다. 연로하신 회장님의 대를 이를 차기 대권후보를 찾습니다. 자격은 92학년 아무나 됩니다. '행'과 '휘파람'을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도록 감수합니다.
■추천후보
추천하는 제비(?)들은 무조건 우대함.
-새벽을여는사람들 회장
■유상·보성·상명·수도여교 연합동문회를 '오는 26일 오후5시 원효관 A301에서 갖고자 합니다. -동문회장
■봄의 설레임 속에 멋진 동문새내기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는 수부대향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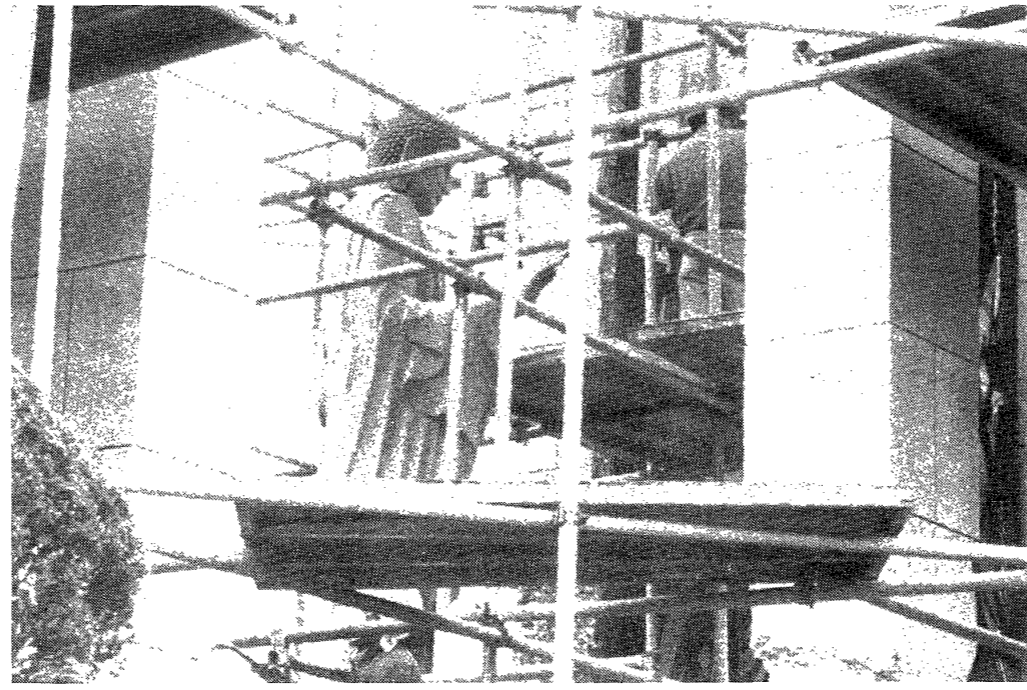
재단 학교당국 학생

"교육재정확보 함께하자"

동국의 새 활로 모색

88년 학원자주화투쟁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어 학내제반모순들에 대한 대수술이 있었지만 4년이 지났다. 당시 체제를 거듭하던 학교를 살리고자했던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의 애교심과 발로는 날카로운 현실적시와 문제해결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 기인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92년 우리모습은 학원자주화투쟁을 한발 선배들의 무용담으로 슬자리에서나 오가고 있는 고고하지 않은가. 다량관심업의 좋아진 식생활에 만족하고 등록금 몇% 환불받는 것에 학원자주화투쟁을 빚었다면 엄청난 비약일까. 은연중에 동학에 만연하고있는 학교발전에 관한 무기력과 무관심에 엄청난 각성을 촉구한다. 이들은 등록금투쟁이 한창인 지금 등록금투쟁과 재단혁신의 관계를 조명해봄으로 무기력한 동학에 힘을 불어넣고자 마련했다.

(편집자)



동국은 지금 내부 수리중에 있다.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 있으며 그 출발은 재단혁신이다.

1.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
등록금투쟁시즌이다. 학기초 한번은 많아도 할 용역쯤으로 등록금투쟁을 바라보는 것은 비단 학교당국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등록금투쟁과정이 협상, 절령, 집회, 집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짜여진 경로를 밟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현재 등록금투쟁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등록금투쟁은 시즌정기가 아니다. 학생회사회의 근본적이며 학생회강화 방도로써 학원자주화투쟁의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학부모), 재단, 정부(교육부)이다. 이들을 어느하나 교육의 모든 책임을 질수없는 것은 아니라 한때 등록금투쟁을 풀이하는데 있어 3자공동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운운하며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에 맞서 재단혁신과 대정부교육재정확보투쟁을 등록금투쟁과정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투쟁이 인상 인상 재정부조는 근본적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없이 계속될 것이다. 등록금투쟁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제로 서서 학생회에게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것이 매년 등록금투쟁을 준비하는 첫 시작이다.

2. 등록금투쟁의 과제
올해로 개교28년을 맞은 우리대학은 1906년 당시 신불교운동등 전개하던 선각자들이 민족통일상을 배양하기위해 세운 명문사학이다. 그 후 문학, 철학, 불교보살, 남다른 학풍을 자랑하던 민족대학으로 서왔다. 우리대학의 재단인 대한불교조계종만 보더라도 동대의 위용은 일반적이다.

국가다운 부흥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계종은 전국에 엄청난 인야를 갖고 있으며 이를 수익자산화하던 동양최고의 사학재단이라고도 전한다. 이같은 불교보살의 풍부한 만물이 10만동원과 2만 재학생의 인물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음이 증명된다. 주어진 주권적 역군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침체를 거듭해왔던게

요 몇십년의 현실이다. 그 이유는 학교발전을 힘있게 추진할 인물의 부재와 이를 지원할 재정적 토대의 미약함을 꼽을수 있다.

대학의 모든 힘은 재단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현실에 문제를 풀이하는데 있어 재단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등록금투

재단전입금 확충없는 등투 "밑빠진 독에 물붓기"

등투-재단혁신연결은 학생회 강화가 관건

재단 혁신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듯 학원내 최고권력의 집중된 재단의 혁신없이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요원하기 때문이다. 동국발전의 근간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3. 열악한 재단현실과 활성화 확보

동국학원재단이사는 모두 13명으로 이중 승려가 반이상을 차지하며 총동원액의 3%도 포함된다. 재단을 이루고있는 이사들의 문제는 크게 학교운영의 무능함과 도덕적 부패성으로 대별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재단전입금이 10억정도로 학예사업의 5%도 안되는 재정적 모순과 재원확보나 학교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서 드러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운영의 비민주성과 중단부조정의 대표자들로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없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양심있는 재단은 학교 발전에 대한 지원이나 재단보급보다는 이권관계이나 이사지위를 명분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양심있는 재단이사들의 교체와 이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사들을 재원확보나 이사자격명등을 통한 정경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재원확보방안으로 그동안 여러곳에서 제기되었던 기여이사제, 골지제별의 이사명명, 재단재산의 수익사업체제로의 확대·전환을 양심적인 이사, 학원주체들이 공동

으로 연구, 조사작업을 통해 의거적으로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알려진바로는 동국학원소유의 토지가 총9백35만7천9백9평이 되는 데 이중 99.7%인 9백32만2천4백36평이 인양에서 활용성적사업체나 임대업등에서 벌어들이는 타대 학원입금 형태에 비해 전무하여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다. 학교운영의 절대적용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재단의 합리적, 민주적운영과 수익사업확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금 매년 두자리수 인상은 당연한 논리거결일 것이다.

교육재정확보의 핵심은 재단전입금확보와 국가교육재정확보에 있다. 매년 10억의 재단전입금이 현재 수익사업체로 있는 전산원과 수영장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는 일정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재단전입금의 결집시키는 장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그렇다만 장기적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할 방안들이 포함된 장년기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데 매달리 등록금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만 장기적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할 방안들이 포함된 장년기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데 매달리 등록금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만 장기적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할 방안들이 포함된 장년기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재단은 재단자산을 모두 공개하고 교수, 학생, 직원, 재단, 학교당국, 종근대교가 모여 자선활동을

위한 구체적 조사작업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같은 동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마저 재단이 거부한다면 어떠한 문제제기도 실효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4. 등록금투쟁과 재단혁신

등록금투쟁과 재단혁신을 어떻게 연결시켜 전개할 것인가는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학생회로의 결집에 달려있다.

92년 학원자주화투쟁의 과제는 재단혁신이다. 재단혁신이라함은 재단의 인적, 물적구조를 혁신해내고 재단발전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때 순순적이어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 일상사업에서 부딪히는 내용 하나하나에 재단혁신의 연결점들을 찾아내 주체를 준비하고 학생회주위에 결집시키는 장기작업에 부합하는 것이다. 학내제반문제를 풀이하는데 있어 주체를 옹립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상충중심의 사업에 몰두해 주체를 세우고 이들을 학생회체제로 결집시키는데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또 주체는 세워놓고 아무런 의식공유없이 공부에만 빠져있는 모습도 사업을 통해 조직화, 의식화해나가는 데 있어 역효과를 낳는다.

등록금투쟁과정에서 재단혁신은 그 명분과 교두보를 확보하는 문제라 하겠다. 직접적이고 단순한 단위복지요구안정투쟁에서 재단

과 학교당국에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공동투쟁과 제도적 합의를 이뤄내는 제도정착투쟁까지 등록금투쟁은 그 수위가 다양하다. 단위복지투쟁형태에 머물러 재단혁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제도정착투쟁을 강조해 단위복지투쟁투쟁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단혁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주체들의 역량에 맞게 단위복지요구안에서 제도정착까지 각각의 투쟁을 벌여나간다면 간과투쟁을 갖고 재단혁신 내용요양과 선적작업을 통해 주체들의 학의의식을 높여내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등록금 투쟁을 비롯한 학원자주화투쟁은 학생회 스스로 생활적 차이에서 각성된 문제의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나서서 투쟁하기때문에 학생회 스스로 학생회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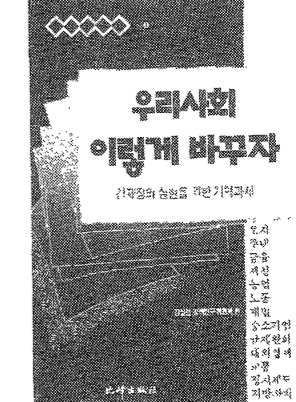
때문에 자주적 학생회건설의 기반이 되며 학원자주화투쟁을 이끄는 조직적 형태인 것이다. 등록금고지시인발발부, 등록금기초회동 이까지 등록금투쟁이 학생들에게 신뢰를 갖고 힘있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에는 치밀한 준비와 정열력을 갖지 못했던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걸려있다. 총학생회는 이후 등록금투쟁을 이끄는 지도의 구실이 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모범으로 서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주입적이 내재했던 안습구조조정에서는 경제적정착의 원화, 산업구조의 고 부가가치화,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혼저가론되는 이슈외에 농업 및 농촌주

서평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편



이 책은 '경실련'이 1992년 선거의 해를 맞아 차기 정부가 국가의 개혁과제를 제기하는 정책이슈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실련'의 정책연구위원회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연구 및 토의를 토대로 경제정

의 확대가 있다. 농민의 보료라는 행정성의 관점에서 농업 및 농촌부자의 확대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겠지만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 보다는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학자가 많으리라고 본다. 넷째

차기정부·국회의 과제제시 정치·경제등 13개분야 개혁정책 마련

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들을 종합정리하여 나온 것이다. 40여명의 학자가 참여한 13개 분야에서 54개의 과제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있으며 책의 편지는 20년의 '총론'과 286건의 '분야별 제도개혁과제'로 이루어졌다.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을 위해서 민주적인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과 산업구조의 개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가지 문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항상 어려운 문제로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리고 효율성도 성장과 안정이라는 조화시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는 작은 정부를 원하지만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정부가 요청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화있는 경제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원만하게 해낸 '경실련'의 작업에 찬사를 보낸다.

54개 과제를 짧은 지면에서 모두 평을 할 수도 없고 그중 일부를 살펴보는 것도 어려우므로 이들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총론을 중심으로 평을 해본다. 총론에서 제시한 개혁의 기본방향 여섯 가지를 보면, 먼저 효율성과 형평성의 동시추구가 가능한 영역들로 금융시장의 실시, 토지시장의 개혁, 금융제도의 자유화, 재정구조의 정상화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행정부 내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익숙한 과제들이지만 그러나 이들 제도들이 흔히 말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선상에 있지 않고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정책이라는 관점은 상당히 실효력을 갖는 것 같다. 둘째, 사회복지의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 종합적인 교통대책 확립 등을 들고 있으나 분야별 제도 개혁과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독립된 하나의 분야로서 다뤄지지 않아서 아쉬울 것이다.

셋째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서는 경제적정착의 원화, 산업구조의 고 부가가치화,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혼저가론되는 이슈외에 농업 및 농촌주

로의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꼽고 있는데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다섯번째로 불합리한 정부개입의 축소를 위해 규제완화와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을 들고 있다. 정부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막기위한 수단이지만 이는 흔히 경직성과 부패 등의 정부의 실패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수 많은 규제의 난맥상을 시장경제의 실적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는 시장의 기능을 보충하는 선에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팔로로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자금법의 개정,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제도 개선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두가지 항목은 국회의원 선거를 막 치른 지금 그 감각이 마해지고 있다.

사설

1만 동학인이 동대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대중에 기반한 등투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등록금은 처지고 실습비는 제자리...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등록금은 처지고 실습비는 제자리...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등록금은 처지고 실습비는 제자리...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등록금은 처지고 실습비는 제자리...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등록금은 처지고 실습비는 제자리...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등록금은 처지고 실습비는 제자리...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등록금은 처지고 실습비는 제자리... 동국발전의 근간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7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속에서 동국발전의 전기는 모색될 수 있다.

대학원 어학모임 안내

어학에 관심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어학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대학생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목	시간	장소	교재	대상	강사(학습모임지도)
한문	기초	미정	A101	사기	대학생 유만준 (철학·석사4)
	중급	월수목요일 오전8시	인사연	맹자	대학생 이원석 (사학·박사3)
영어	대학원	27일 5시	인사연	미정	대학원생 김상일 (국문·박사3)
	인문계	화·금 오후 5:30	인사연	Feminism	대학생 박상관 (국문·석사3)
독어	사회계	수·오전:7:30 토·오전:9:00	인사연	인사연	대학생 이남석 (정치·박사1)
	대학원	목 5:30	인사연	Gender and theory	대학원생 박선숙 (영문·박사 6)
일본어	독어	월 5:30	인사연	그람시	대학원생 강유원 (철학·박사6)
	일본어	월 5:30	인사연	日本論	대학원생 최은희 (일본석사3)

대학원 인문사회과학 연구회

동대신문사

◆ 14대 총선 결과 해설

3당야합 역사적 심판 '민자 참패'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자당의 참패, 여소야대의 재창출을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군 부재자 투표부정, 안기부 선거 개입 등 노골적인 관권개입이 막대한 정적함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은 의석과반수(전국구 포함) 1백 5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헌저지선(전국구 포함, 1백석)을 아랑에 겨 넘겨주었다.

이로써 민자당내의 대권후보 심리전이나 여·야의 정치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더욱이 국민당의 부상, 무소속의 강세 현상은 이후 정계개편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었다는 것과 3당야합의 국민적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역대 총선 중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여·야의 의석 확보율은 3당야합에 대한 비판적 행위로 풀이된다.

민자당은 YS계의 부산씩잡아, TK지역의 표를 장악하면서도 지역구 1백15석, 전국구 33석을 확보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대선까지의 정치일정 속에서 대권후보를 둘러싼 집안싸움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과반수의석인 57%(1백55



민자 97석, 33석, 15석의 의석을 확보한 14대 총선은 전국구 투표율, 민자 1백55석, 여소야대 재창출을 특징으로 했다.

신 여소야대 재현 ... 이후 정계개편 주목 국민-무소속 강세, 민자패배 '1등공신'

석)의 확보를 낙관했던 민자당의 참패는 곧 6공, 그리고 3당합당후 나타난 경제파탄·정치실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일침이었다.

즉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인정받아야 할 민자당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은 이미 국민들의 에겐 설득력이 없었다.

여기에 정경유착, 정치현금내막을 폭로하며 민자당과의 정면대결을 선언했던 국민당 정주영대부가 부각시킨 대통령의 자판과 정치에 대한 회의론은 6공실정(失政)의 위험수위와 결부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민자당표를 잠식시켰다.

결국 민자당의 참패는 도시층은 총의 투표참여로 서울·대전지역의 민주당 압승, TK지역에서의 국민·무소속 후보의 강세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고 민주당의 서울지역 압승보다 TK지역의 국민당·민자당·정주영대부 무소속의 표창석이 결정적인 타격이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러한 민자당의 선거참패는 선거총괄인자인 YS인재, 중부권의 열세로 JP의 피조현상을 필연 야기시켰고 차기대권후보를 둘러싼 민자내 계파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또 민정계 후보의 대거당선도 이후 '대선으로 향하는

집안싸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민주당은 호남지역의 탄탄한 지지기반을 토대로 짧은총의 투표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서울지역에서 압승했다. 지역구 75석, 전국구 22석으로 독자적인 개헌저지선을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제1야당의 자리를 굳혔다. 또 대전·울산, 충청권의 당선은 기존의 '호남집'이라는 지역감정의 한계를 일정정도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킨 국민당의 의석확보(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는 이후 국회운영등 정치계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수도권지역의 우세나 TK지역에서 민자후보와의 경쟁,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석수가 고른 선거결과를 대표의 정치발전만들이나 민자당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수위이다. 다만 원내교섭단체로서의 부각이 확실해지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대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시사했는데 이후 국회운영에서 이의 의도가 주목된다.

이번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14대 총선의 특징은 신 여소야대 신민주당의 약진과 국민당의 부상, 스물셋은 지역간정 역전, 스민중당의 계도권입의 한계노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민중당의 원내진입 좌절은, 전국연합의 연합공천과정에서부터의 입장차이나 선거전술 측면에서 앞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할 민민운 세력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운동' '신보의 공약'으로 표를 호소했던 민주당이 당선예측한 후보가 3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나 전국투표율이 1.5%에 그쳤다는 사실은 총선 이후 민민운에게 하나의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현재 민중당은 전국투표율 2%에 못미쳤으며 경제혁신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또하나의 특징은 진보세력의 대거 당선이다. 전국연합이 선정한 민주당 32명중 이부영(민주·성동 권) 제정규(민주·경기 시흥·군포) 등 5명의 의원이 당선됐다. 또 민주당 후보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총학생회장 출신인 영봉표를 김민석(민주) 후보가 2백59표차로, 노원을 임재영(민주) 후보가 36표차로 낙선한 했지만 대단한 선전이었다. 이는 이후 민민운의 정치세력화나 이의 전망에 있어 중요한 현상으로 평가될 것이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의 무능과 3당야합이후의 집안싸움이 이번 민

자당 패배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후 정계개편이나 대선이후의 정치구도에 미국의 개입이 6공때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총선이후 정계는 민자당의 내분, 정계개편을 둘러싼 또 한차례의 '해체모의'의 구도가 재현될 것이라는 추측도 일고 있지만, 국민당이 자기 힘을 이번 선거결과에서 확인했고 지역구 21석을 점유하고 있는 무소속 후보의 경우도 민자공천탈락자나 5공 주요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무소속 당선원의 이후 행방은 민자당과 국민당의 끌어들이기 2파전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YS인재가 현실화 되어 그가 대권후보에서 멀어지거나 대선을 둘러싼 계파갈등이 심각한 국면을 만나 '한지붕세가족'이 각각 분가하는 사태로 비화된다면 제도의 야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총선은 신 여소야대 창출, 국민당의 부상과 무소속의 강세 등의 특징이에도 민민운에게 여러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역대 총선상 관권개입이 가장 노골적이었으면서도 선거결과가 민자심판으로 기울었다는 점, 둘째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었다는 점, 셋째 민민운의 통일원 임명을 갖지 못해 야당에 비해 국민의 호응이 적었다는 점 등이다.

총선이후 선거유류중으로 한동안 정계가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민민운은 대선에서의 반민자투쟁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전술·입장차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병민 기자)

◆ 안기부 선거개입 사례

이번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는 금권·관권 선거로 얼룩진 선거의 표상이었다. 민자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은 14대 총선이 공고되기 오래전부터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 '관권 개입없는 공명선거'를 입버릇처럼 얘기했으나 투표전날인 지난 23일부터 공공연히 돈봉투가 난무했고, 안기부직원의 선거개입, 군 부재자투표의 부정 등을 불매 투쟁의 공약은 순전히 거짓말이었다. 이번 총선에 안기부의 역할은 엄청났다. 이주일씨등의 회유, 5공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출마저지 등으로 민자당내 신TK(대구·경북세력)구도를 확실히 했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일부터는 안기부, 기무사요원 2백여명이 전 안기부 비서실장을 당선시키기위해 경주시로 파견됐다는 시문등 유독 경주시 주위의 안기부 개입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최근 안기부원들의 타후보에 대한 혹색 선전, 군 부재자투표 부정 등을 미루어볼 때 확실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경주시 선거구의 관권개입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번 경주시의 경우 전 민자당원의 조직을 현 공천자의 권력의 힘으로 회유해 민자당후보의 조직으로 바꾸어 놓았다. 더욱이 대

“민자당정권이 전국 20개 지역구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사전 투표를 해서 민자당 후보의 당선을 조작하려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이라는 정보는 안기부 중견간부와 또다른 2명의 제보에 의한 것이어서 이번 안기부 개입, 군 부재자투표부정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번 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민자당의 총체적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가인상, 정치적 불신, 고리를 문 권력형 부패와 비리등의 국민에 의한 심판이다.

정치적 음모와 국민에 대한 배신인 3당합당, 남치기 풍파등의 의회

흑색선전에서 후보자 회유까지

경주 선거관련 안기부 요원 30명 배치 대학생의 선거캠페인에도 '긴장'

경주캠퍼스가 속해있는 경주시 일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신TK 구도에서 미약한 부분으로 지적되던 경북 동부지역에서 이번 14대 총선에 출마한 민자당후보는 13대의원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이었다. 특히 경주시의 경우 13대의원이었던 김일원씨를 공천탈락후 무소속 출마를 계속 표명해 오다 불연 미 국으로 잠적해 버렸다. 이의 원인을 살펴볼 때 경주시의 민자당 공천자가 서수종(전 안기부 비서실장)씨로 안기부에서의 압력에 의해 김일원씨를 저지시켰다는 소문이 경주 시민들 사이에서 공전되었다.

또한 서수종이 안기부요원 5명파견, 대구 안기부에서 10명, 포항에서 15명이 파견되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리고 학생들의 조직동원이 전국에서 문제되는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1차유세에서 민자당 박수우대표 등 원년 대학생들은 2백여명으로 그 중 경주캠퍼스 재학생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관권선거가 판을 친 경주시의 경우 금권선거 또한 암암리에 진행됐다.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경주시 공명선거 감시단에 제보된 돈봉투수수, 향음제공 등은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13대총선의 경우 투표전날 2억원의 돈이 풀렸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며 이번 14대 총선에서는 더 많은 돈이 풀렸을 것이라는 게 경주시민들의 추측이다. 경주시에서의 일례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1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말한

“학생들의 조직동원이 전국에서 문제되는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1차유세에서 민자당 박수우대표 등 원년 대학생들은 2백여명으로 그 중 경주캠퍼스 재학생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관권선거가 판을 친 경주시의 경우 금권선거 또한 암암리에 진행됐다.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경주시 공명선거 감시단에 제보된 돈봉투수수, 향음제공 등은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13대총선의 경우 투표전날 2억원의 돈이 풀렸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며 이번 14대 총선에서는 더 많은 돈이 풀렸을 것이라는 게 경주시민들의 추측이다. 경주시에서의 일례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1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말한

“학생들의 조직동원이 전국에서 문제되는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1차유세에서 민자당 박수우대표 등 원년 대학생들은 2백여명으로 그 중 경주캠퍼스 재학생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관권선거가 판을 친 경주시의 경우 금권선거 또한 암암리에 진행됐다.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경주시 공명선거 감시단에 제보된 돈봉투수수, 향음제공 등은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13대총선의 경우 투표전날 2억원의 돈이 풀렸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며 이번 14대 총선에서는 더 많은 돈이 풀렸을 것이라는 게 경주시민들의 추측이다. 경주시에서의 일례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1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말한

“학생들의 조직동원이 전국에서 문제되는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1차유세에서 민자당 박수우대표 등 원년 대학생들은 2백여명으로 그 중 경주캠퍼스 재학생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관권선거가 판을 친 경주시의 경우 금권선거 또한 암암리에 진행됐다.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경주시 공명선거 감시단에 제보된 돈봉투수수, 향음제공 등은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13대총선의 경우 투표전날 2억원의 돈이 풀렸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며 이번 14대 총선에서는 더 많은 돈이 풀렸을 것이라는 게 경주시민들의 추측이다. 경주시에서의 일례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1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말한

이진호 (법정대 법학과)

동막로

진전없이 계속되는 등록금협상에 학생들이 재단이사장실들을 침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도 14일째 접어들고 있으나 학교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매일, 매일의 생활 수칙대로 일과를 마치고는 늦은 시간까지 일상적인 대화나 투쟁방향을 논의하는 학생들의 수를 대략 10명 정도만 안팎이다.

한데 지난 22일 이틀째 2개 단대가 농성을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단대학생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예술대 단독으로 농성장을 지켰다. 이에 예술대 한 학생은 “우리처럼 등록금협상 실패실습비의 비

중이 많은 단대라 그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함께 할수 있었으면 했는데”라며 이날 같이 농성에 참여하지 못한 단대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했다.

다시하는 등투

이렇게 등투에 대한 분위기가 가라앉은 현재의 상황의 원인에

“하지만 재단의 전입금확충과 ‘등록금 책정협의회’의 제도화등의 유해 등투의 관철점을 학생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점 또한 면할 수 없다.

“지난 88년 동국총중의 가치를 높이올렸던 당시의 감동을 되새기면서 다시한번 학원 제 주체들의 각성과 학생대중들을 추동시킬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때입니다”라는 한 농성학생의 말처럼 등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평가시켜 낼 수 있는 노력이 절실 요구 되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등투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까지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다시 고쳐잡는 과감한 자성의 용기는 우리모두의 몫이다. 식이있는 평소의 쇠가 아니라 뜨겁게 달구어져있는 쇠를 쳐야만 쓸모있는 연장이 만들어지듯 등투라는 쇠망이를 두들기기 전에 좀더 학생들의 의지를 모으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재단의 전입금확충과 ‘등록금 책정협의회’의 제도화등의 유해 등투의 관철점을 학생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점 또한 면할 수 없다.

“지난 88년 동국총중의 가치를 높이올렸던 당시의 감동을 되새기면서 다시한번 학원 제 주체들의 각성과 학생대중들을 추동시킬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때입니다”라는 한 농성학생의 말처럼 등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평가시켜 낼 수 있는 노력이 절실 요구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전입금확충과 ‘등록금 책정협의회’의 제도화등의 유해 등투의 관철점을 학생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점 또한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재단의 전입금확충과 ‘등록금 책정협의회’의 제도화등의 유해 등투의 관철점을 학생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점 또한 면할 수 없다.

(조용수 기자)

천연과일쥬스는 해태가 좋습니다.

농촌을 되살린다는 보람으로 제품개발에 더욱 애쓰고 있습니다.

해태가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한 일 197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귤과 사과를 쥬스용으로 대량 수매한 해태는 포도, 복숭아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수매로 지난 17년간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외로운 노력 해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노력으로 우리 농산물의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뒤따라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농산물 수매량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호박으로 시작하는 1992년 우리 농산물로 지켜가는 우리의 입맛, 우리의 건강. 해태는 몸에 좋은 호박을 새로운 건강음료로 개발하여 1992년, 새해에도 선구자적 노력을 계속 펼칩니다.

농촌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 농촌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국민과 더불어 한마음되는 사회를 위해 해태가 앞장서겠습니다.

- 1975년 — 감귤 사과(천연과일쥬스 씨네티넌, 봉봉오렌지)
- 1976년 — 복숭아, 도마도(복숭아넥타, 도마도쥬스)
- 1982년 — 포도(포도봉봉)
- 1992년 — 호박(나고을 감호박)

해태가 국내최초로 우리농산물을 대량 수매하여 과실음료로 개발한 제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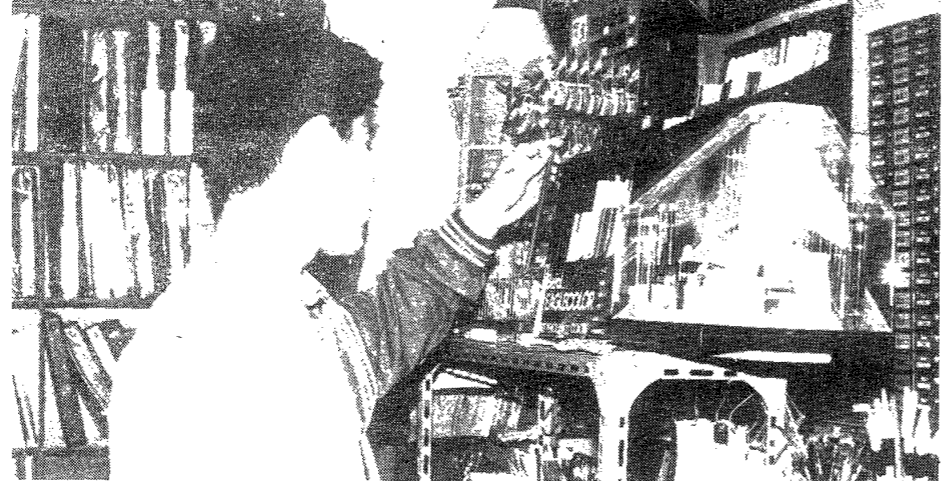
- 건강에 좋습니다.
- 여성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 아침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 간식으로 좋습니다.

쥬스의 명품
해태음료

외제문구류 대학가 범람

외제상품 흥수시대

“아저씨 일제 Pentel 사프 하나 주세요.”
이것은 어느 부유한 집안의 첩부지 아이들이 일류백화점 문구류점에서 외제 펜을 사러 가는 소리이다.
학교 주변 문구점이 외제상품으로 차가워져서 ‘MADE IN U.S.A. MADE IN JAPAN’이라 박힌 볼펜을 집어드는 우리의 모습이다.
가격이 1,2백원이라고 무시코 문구점을 둘러볼라하며 우리가 외제 물품 소비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은 의외로 많다.
특히 학생들이 항상 쓰게 되는 간단한 필기구부터 중대생들이 쓰게 되는 제도기·계산기, 또 미술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방용품 등 무시코 이용하는 외제문구류 사용량이 부쩍 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주변의 문구점에 비치된 외제문구류는 대개 일제, 미제, 서독제 등이다.
이들 외제 문구류는 국산과 가격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며 디자인, 품질 등이 좀더 우수한 게 사실이다.
먼저 이같은 외제 문구류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제품의 경우 이미 학생들에게 익숙한 Pentel 사, Zebra사의 볼펜·사프·수성펜 등은 월등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국의 Eic사와 서독의 Staedler사의 제품들도 간혹 눈에 띈다.
국산은 모나미와 일본 기업과 기술 제휴한 PILOT사의 제품 정도가 그나마 함께 견줄만 한 정도이며 그밖에 모닝글로리 등 신생기업들의 제품은 몇몇류 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이들 외제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경쟁력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우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0.5mm 볼펜은 일본 Pentel사 제품이 2백원, 영국 Staedler Stick 430F가 3백원, 국산 모나미 Gripper와 문화 Deojon-S가 2백원이고 보면 모나미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3백50원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같은 종류이지만 일본 Zebra사의 Millipen은 7백원의 고가이면서도 장기가용이 가능하고 심도 깊어 글씨를 잘 써 준다. 이같은 외제 펜은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프는 일본 Pentel사의 P205(2천5백원), P207·P209(3천원) 제품으



“일제 카세트에 미제 건전지를 넣고...”

국산과 가격 비슷...습관성 구매 주의

리가 UR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외 국산품 물가에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이다.
이제 국제 경쟁력 있는 국내 문 구산업은 지방화되지 못하면서 혼 허 우리는 요즘 ‘외제상품의 흥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 비추어 자리잡고 있는 수많은 외제 상품들 에 무관하게 가는 상태까지 와 있다.
외제과자, 식품품을 전열해 놓고 동네이커를 지고 있는 외국유류 업체와 24시간 편의점을 편리하게

문을 닫고 우리네 가전제품들은 더 를 잃고 마냥 제고, 할인판매를 거 품하고 있다.
인젠 양말과 처음 수입되었 을 때 대학생들은 볼레운동에 앞장 서며 강한 반발을 보였지만 지금은 학교 쓰레기통에 양말과 콩초가 드 르듯돈 섞여있곤 한다.
“국산이 그렇지, 뭐하러 치부하 기 보다는 양말과 볼레운동을 벌이 며 우리 농부들을 생각했던 마음으 로 모두 작은 실천을 이야기할 때 다.”
(박수로 기자)

로 국산 마이크로에서 이를 모방한 제도사프(1천원)가 나올 정도로 인

◇ 다시 제기되는 분임토의

3월 신학기를 맞으며 각 대학은 등록금투쟁과 총선투쟁을 두 축으로 각종 선전작업과 행사들을 마련,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총선·등록금 투쟁 이는 하나에서 ‘세대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대학이 없다.
오히려 예년에 비해 부각되는 정 점이 있으면서도 학원가는 조용하 다는 분석이고, 총선이후 학생운동 의 침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 도 나오고 있다.
본교의 경우 학생회는 총선 이후



“등투확신, 분임토의에서 나온다”

학생들의 이와 요구 수렴... 힘있는 등투 담보 주제선정-토의방식등 운영방법 정립 필요

등록금투쟁을 전면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등투에 대한 학생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1 만 동약인의 힘을 모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총선투쟁과 등투 진행과정 에서 지적된 것은 상층 지도부의 지도력 문제와 과단위로부터 활발 한 의견이 개진되고 이것이 총회된 투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회 중심의 대자보선전이나 학 생회간부들의 발상작업에도 불구하고 과학학생회나 학회소모임의 분위기는 등투의 긴장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분임토의에 기초하지 않은 등투금투쟁은 학생회로부터 학생들 을 격리시켰으며 단결이 결여된 ‘지지부진’ 투쟁과정만 전개됐을 뿐이다.
현재 학생회내에 분임토의에 대 한 이해수준은 대단히 낮다.
분임토의가 단순한 한 사람에 대한 토론이 아닌 사안에 ‘하나의 힘’으로 나타난 성과를 우리는 지난 해 5월 정국에서 경험했지만 아직도 학내에는 ‘소모적인 것’ ‘정치적

입장차이가 커져 분열된 모습만 보 이는’ 분임토의만을 염두하는 학생 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이제까지의 분임토의가 올바른지 못한 방향에서 이뤄졌음을 반증한 다.
첫째 학회소모임, 학년학생회하 서 일방적인 분임토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던 반면 총학·단대학생회에 서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고 ‘토론 하고 집회에서 발표하라’는 상층하 고 과학학생회나 학회소모임의 분 임토의는 등투의 긴장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재 과·동아리내의 각종 소모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 제선정, 토의방식등 운영·조직상의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았을뿐 아니 라 풍부한 모범사례가 선전되지 못 했다.
셋째 분임토의에 필요한 자료와 사안에 배포되는 준비의 불철저함 으로 ‘내용없는’ 분임토의만을 진행 시켰다.
분임토의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창구가 아 니다. 과제육대학, M.T 등 일방적

인 모든 활동이 그 주제가 될 수 없다.
또 분임토의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총회되어 하나의 투쟁방향이 될 때 학생들은 이에 확신을 갖고 투쟁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즉 소수 의 운동이 다수의 대중운동으로 변 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야 한다는 명제는 유요 하다.
현재 등투에서 학생들의 방편하 는 자제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 다. 그러나 활발한 대자보선전이나 학생회간부의 논의에서 등투의 힘 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등투 를 되돌아보는 오류를 범하기 쉽 다.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등투 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학생들의 참여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분임토의가 학회소모임, 반강의실, 휴게실에서 활발히 진행될 때만 ‘내가 등투주 체’라는 인식에 기초한 학생참여 를 담보할 것이다.
(이병민 기자)

◇ 근로 장학생 지원 실태

보수인상-장학혜택 고려 시급 신규지원자 없어 신입생에게 기회부여

올 1학기 등록금이 인상률 19%로 높게 책정되면서 학비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1백만원이 넘어가는 학비라면은 부모님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꽤 될 것은 당연하다.
예전에 학비마련이 어려웠던 시절이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를 충당해가며 어렵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학교내 행정사무실에서 수 업이 없는 시간에 임무를 보조하 는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근로장학생’은 공교로 나 가자마자 학과 추천을 받기위한 지원자가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에는 장학

과에서 배학기마다 계속 근무하려 는 학생을 파악하려 할 때마다 그 만두는 사람이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자 모집공고를 내도 자원하는 학생이 그치지 않게 되었다.
올해는 작년 2학기 1백9명의 근 로장학생을 계속 근무하기를 바란 학생은 25%밖에 되지 않았고 각 대학·과별 추천회의에도 신규지원 자가 모이지 않아 신입생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결손을 채웠다.
이같은 지원자가 계속 줄어든 는 추세에 대해 장학과의 한 “저는 ‘85년 무렵까지만 해도 근로 장학생이면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 았으나 등록금이 오르는 것에 비 해 보수는 3~4년간 고정돼 왔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장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등록금중 기성회비 30만원 면제와 월 수교비 7만원이 지급되 고 있으며 이 액수는 등록금의 70 %선에 머물러 있다.
“수업시간에 대부분 근무지에 있으나 쉼난 시간만 아르바이트 수당만큼도 되지 못한다”며 한 근로 장학생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개인적으로 책도 읽을수 있고 학 교업무는 특성때문에 보수인 상은 내세우기 어렵다”고 설명한 다.
이처럼 근로장학생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지만 이같은 대해 학교측에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논의

92년 1학기 근로장학생 부서별 배경표

부서명	인원	92-2	계속자	신규자	92-1	비고
도시	59	17	42	59		
전자계산	12	3	9	12		
비상계획	8	1	7	8		
우체국	7	1	6	7		
학적	4	0	4	4		
강학	2	0	2	2		
외국어교육	4	1	3	4		
여학생	3	1	2	3		
계산교시	2	0	2	2		1명중원
경과	0	0	0	0		
불교통과	1	0	1	1		
학생생활	1	1	0	1		
이과대	1	1	0	1		
경상대	1	0	2	2		1명중원
공과대	1	0	2	2		
이부대	2	0	2	2		
취업	0	0	1	1		1명중원
취업	0	0	1	1		1명중원
합계	109	26	83	112		3명중원

가 없었다.
또 한가지 문제는 1학기 동안은 계속 근무를 해야함에도 직원에게 말한바다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통 신청자중 30명이 근무를 시작하지 며칠되지 않아 말도없이 결근하기도 한다”며 한 직원은 몇 몇 학생들의 무책임함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근로장학생 들에 대한 치우개선과 혜택의 폭 을 늘리는 것들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 때는 또다시 서로에게 필요 한 이데오가 제대로 자리 매김되 지 못할 것이다.
(사회부)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무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열심일 뿐 아니라 교수진을 모시기도 최우선입니다.

B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S.L.E코스 (각반 12명 정원/강사 1명씩·박사출신 미국인/12달 완성) 미국 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LADO회화

E NGLISH영어·TIME·영어순회(특혜)·TOEFL·종합영어·고득점TOEFL·종합영어·GRE·GMAT·문법·영어실력기초 VOCABULARY·AFKN청취·TOEFL L/C·무역영어

S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11주 프로그램·일본어·NHK 일본어회화·리시어·리시어회화·프랑스어회화·독일어·중국어·중국어회화·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선어학교수님·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원발급·수료증취득·과학적이고 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배정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남동 274-4000
다음학기 예약합수준
강남·양구역역 한남동교동 한남동 515-4700

파고다 학원

SINCE 1961

개원 31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종각역 TEL :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TOEFL
특TOEFL
이재목TOEFL
TOEFL GRAMMAR
VOCAB 22000
영 어 순회
TOEFL L-C
TOEIC L-C
TOEFL 600

미국어HEARING
성문종합영어
성문기법영어
TIME·영작문
영어 회화
(초·중·고급)
미국인회화
GRE 2000
M·A English
(대학원 진학준비)

일어문법·독해
(초·중·고급)
일어 회화
일본인회화
리시어
독일어
독일어
(초·중·고급)
GMAT 700
통역대학원
입 시 반

매킨토시 클래식 II/스타일라이터

매킨토시

특별할인판매

40% OFF

3,190,000원
↓
1,925,000원
(부가세 포함)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의 명문대학에서 개발한 6,000여종의 전문분야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
매킨토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Mac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방을 공개합니다.
시간 : 매일 오후 1시 - 오후 5시
장소 : 엘렉스 센터 총무모임 (충무로 전철역 앞)

매킨토시 클래식 II 구성
● 16MHz MC 68030CPU 내장
● 한글Talk™ V7, 0세용 (매킨토시용 한글 윈도우 OS)
● 스테레오 사운드 임·출력기는 내장
● 나사리스(한글, 한자, 그래픽 워드프로세서) 제공
● ElexBBS (전자서신/통신 프로그램) 제공
● 하이퍼카드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 제공
● 마우스(Mouse) 제공
● LAN기는 내장

스타일라이터 (Style Writer)
가동과 가격의 혁신으로 더욱 새로워진 개인용 프린터인 스타일라이터는 한글, 한자, 그래픽, 사진까지 편집하여 출력 할 수 있는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일목적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 해상도 : 360DPI (Dots Per Inch)
● 프린터방식 : Thermal Ink-jet
● 넓적 자동공급장치 포함

엘렉스 컴퓨터 전문대리점
필로그컴퓨터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35-2
광화문점: 737-9999 충무로점: 737-8888

수필

신선한 충격으로 채워진 새내기 생활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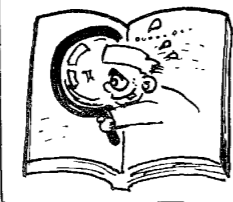
설레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한 감정의 뒤섞임을 지닌 채 맞은 3월은 겨울의 긴 꼬리를 여전히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낯선 사람들과 동학의 정경들을 바라본 입학식 그리고 개강... 이렇게 나의 대학생활은 시작됐다. 아무 생각없이 강의실을 찾아다니고 과 신입생 환영회, 동문회에 기웃거리는 동안 느낀건 슬로 모던 것을 좋아하리라고 하는 대학문화에 대한 반감이었다. 모일후 남는 게 없다는 이런 생각은 무언가의 의미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욕구로 바뀌었다.

세상살이, 문학 등을 얘기하다 자연스레 갖게 된 슬라리에 서의 폭음, 그리고 흥한 모습을 타인에게 처음 보였다. 동을 두드려주는 형, 일기의 오

일주일에 두번의 세미나와 합평회, 바쁘면서도 보람이랄까, 대학에 잘 왔다는 느낌이 든다. 형들과의 얘기 속에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동부와 충선승리를 왜 외치는지 아

릿 배움에의 배고픔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사람을 통해, 책을 통해... 흔히들 대학이 열린 세계라고 하는데 스스로 열리는 노력 없는 열리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래 새내기라고 해서 익은 감이 입안으로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안된다.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살아온 과거의 허물을 벗고 실천적 발걸음으로 생활에서 주체가 되어야겠다. 자신의 손으로 삶의 발을 일구어가는 성실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참의미의 지성인, 대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마름은 스스로 채워야 하듯 배움에 의 배고픔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사람을 통해, 책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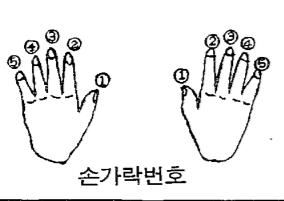
주 조급은 알 것도 같다. 이런 생활속에서 어렵듯이 나도 이런 대학생이란 생각이 내안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학 다니는 친구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실천과 더불어 서지 못하고 스스로의 일을 끝없이 탐구해나갈 때 대학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신발끈을 동여메고 오르는 동아리마루에서 이제 막 쓴는 아침해를 보는 나의 가슴엔 담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유병문 (불교대 불교학과)

수화를 배웁시다



당신의 손가락번호 ②지를 펴서 상대방을 가리키듯 앞으로 내민다. 손전체로 정중하게 가리키는 것이 좋다.

당신의 손가락번호 ①②지를 그려와 양손바닥을 배면에서 마주보게 내린후 ①②지를 그려와 같이 만들어 가슴에서 어깨까지 수직으로 올린다.

당신의 손가락번호 ③④⑤지를 그려와 양손바닥을 배면에서 마주보게 내린후 ③④⑤지를 그려와 같이 만들어 가슴에서 어깨까지 수직으로 올린다.

당신의 손가락번호 ④⑤지를 그려와 양손바닥을 배면에서 마주보게 내린후 ④⑤지를 그려와 같이 만들어 가슴에서 어깨까지 수직으로 올린다.

새로운 경험



꽃가지 사이에 묻어오는 봄의 향을 맡으며 아직은 제법 쌀쌀한 봄바람에 고개를 숙인다. 어느덧 탈수습...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좌절감을 애써 달랠다. 이러한 고민 끝에 찾은 곳이 신문사다. 언론인으로 억압받는 민중을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이제 지난날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론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한 선배의 말을 되새기며 글쓰는 것만이 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과감하게 기자라는 일련의 사치스러운 단어를 벗어야 할 때인지 같다.

웬지 더욱 커피는 나의 활동공간. 신문사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의 포부를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



“손을 들어가지 글만 쓰면 끝인가”라는 한 친구의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동학을 바쁘게 오르내린다.

기사가마감 위해 집회를 등지고 출입처를 향해 바쁘게 가야 했던 난 집회 시위로 빠졌던 수습을 기사쓰느라 빠져야 했다. 게다가 “손을 들어가지 글만 쓰면 끝인가”라는 한 친구의 비아냥거림은 나에게 또 하나의 고민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투쟁의 장에서 나의 동료들이 방패에 적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같이 아파해주

어우를 해줄때만 언젠가 책에서 본 “한마리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때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위안을 삼곤한다.

한없이 추락했을때 난 교정을 걸으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인간의 기억은 참으로 묘하다. 당시의 슬픈일 피로운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되새겨지니 말이다.

지난 1년간의 대학생활은 내게 모순투성이인 사회의 현실을 깨쳐주었고 집회며 기타 투쟁의 대열에 서게 했다. 지탈면이 눈물을 쏟고 백발단에 쫓기면서 패배감도 맛보았다.

그러나 그런 고민이 얼마나

이다. 한때는 경주캠퍼스 등대 신문사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좌절과 방황으로 인해 도피도 하고 술에 취해 욕을 해대기도 했다.

그러나 난 진정으로 날기를 원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상태를 포기하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내 몸속의 실

“막연한 환상을 던지고 당당하게 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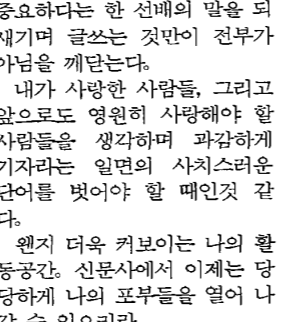
우매한 것인가를 이내 느꼈다. 기자라는 걸림에 사로잡혀 분명 펜만 들으면 됐던 나. 그러나 나의 불성실한 행동들을 신문사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 시키기에 바빴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약하기만 하던 내가 신문사라는 곳에 들어가 또 다른 싸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세상 기술이 부듯해진다. 이렇듯 깊고도 깨끗한 두수를 끌고 당당한 언론 전사로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

을 한순간을 뉘우내어 고치를 만들며 나비가 될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꽃병과 쇠파이프 대신 자주의 필봉과 카메라로 무장하고 전선에 나섰을때 비로소 난 자유이며,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때 나는 행복하다고.

심민지의 아들, 딸들에게 소리높이 외치며 투쟁 투쟁의 선봉에서 정권적립이라는 무기로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꽃병과 쇠파이프 대신 자주의 필봉과 카메라로 무장하고 전선에 나섰을때 비로소 난 자유이며,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때 나는 행복하다.

탈수습이다. 6개월에서 1개월이 모자라는 걸름발이 탈수습.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피식 웃음이 나온다.

“기사를 쓸 때는 육하원칙 아래 시작하고, 리드문은 1매를 넘기지 말아야하며... 동기사각성명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의 ‘뉘가 저렇게 어려워’라는 생각은 처음 취재를 하고 기사

생각했던 건 모두 어디로 가버리고 망설임만이 있을 뿐이었다.

애벌레의 꿈

작은 한해는 어느해 보다 많은 굶주림이 미쳐 피지도 못한 채 피뎠으며 물들이며 산화해 가신 해였다.

수많은 투쟁의 장에서 나의 동료들이 방패에 적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같이 아파해주

어우를 해줄때만 언젠가 책에서 본 “한마리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때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위안을 삼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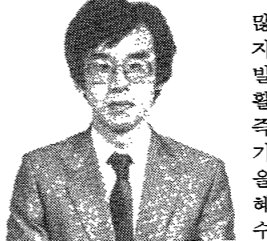
그러나 난 진정으로 날기를 원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상태를 포기하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내 몸속의 실

정기자가 되는 지금, 나에게 닦쳐올 어떠한 시련에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일어서기 위해 정권적립을 바로세우며, 진정한 어머니 조국에 봉사자가 되고자 ‘해야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선진일꾼’의 자세를 익힌다.

달하! 천경에

지식과 지혜의 유용성

하헌구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지식과 지혜를 발휘하면서 생활을 영위한다. 즉, 지식은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혜는 생활의 특수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쓰인다. 이러한 지식과 지혜는 어떠한 때는 상호보완하면서, 다른 때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전개된다.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회구성원중 약 50%가 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파산할 경우를 택할것 같다. 이 세상에는 가치(Value)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만약에 두는 가진 사람이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에 가면 그 사람은 비정상인이 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를 대비하면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린다.

문제는 지식과 지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여 궁지에 몰렸다고 가정할 경우 그 사람이 죄 없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 궁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다시 가정할때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지식과 지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추위환경으로 부터 남을 모함하지 말라는 규범행동양식을 끊임없이 들어 그것을 지식화 하였을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의 유용성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누가 지식을 추구했는가? 과연 여러 분은 지식을 추구했는가, 지혜를 추구했는가?

방관자(?)적 태도에 망설이기도 했다. 새날을 열어아할 기자가 이런 용츠린 모습으로 있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 나는 이제 막막함이 아닌 확실함으로 수많은 학우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아가 한다. 글을 쓰기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한편 그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중상모략하여야 한다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럴때, 지혜를 택하는것이 옳을것인지, 지식을 택하는것이 옳을것인지 가치판단을 호리게 한다. 이런 경우 지식은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지혜는 자기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혜를 따르는 자는 자신이 행복해질지 모르나 도덕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다. 이 사회에서 이렇듯 도덕적으로 파산한

인생의 봄 ‘자연의 봄이야 어김없이 오지만 삶의 봄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어느 작가의 말이 요즘와서 부쩍 나의 마음에 와 닿는다.

정기자가 되는 지금, 나에게 닦쳐올 어떠한 시련에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일어서기 위해 정권적립을 바로세우며, 진정한 어머니 조국에 봉사자가 되고자 ‘해야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선진일꾼’의 자세를 익힌다.

인생의 봄

‘자연의 봄이야 어김없이 오지만 삶의 봄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어느 작가의 말이 요즘와서 부쩍 나의 마음에 와 닿는다.

나에게 닦쳐올 어떠한 시련에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일어서기 위해 ‘정권적립’을 아로새긴다.



안은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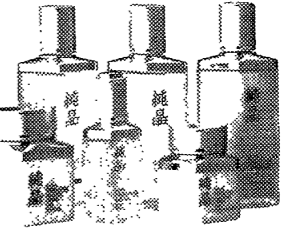


대자연의 순수한 입김으로 피어나는 이슬꽃— 이 순수함을 생각하며 화장품을 만듭니다.

대자연의 순결로 맑고 깨끗한 세백공기를 머금고 꽃잎에 맺히는 투명한 이슬꽃— 그 맑고 투명한 이슬에는 순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도 이슬같이 항상 순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바로 피부의 순수를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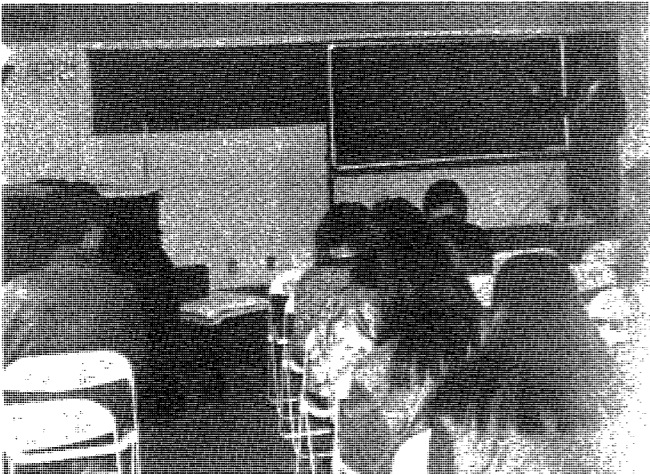
하나의 화장품을 만들면서도 순수한 이슬을 생각하고 그 순수함을 배우고 따르는 아모레— 아모레의 모든 화장품은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아모레 순정은 17개 중립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 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용화장품입니다.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 한국근현대음악사

'우리' 노래 없다... 아버지는 뽕짝 아들은 팝송



노래교사(복원대학교수)와 한국근현대음악사 김희애 열중하고 있는 수강생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상임의장 = 신경림·시인)은 올바른 민족문화의 건설과 민족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문예아카데미를 발족시키고 지난 3월16일부터 16주간 강좌를 실시한다.

표적인 일본의 음계인 '요나누기' 음계는 두박자로 되어 있는데 대개 친일작가의 글이 붙여져, 찬가가 되었다. 이 음계의 대표곡이 '사공의 노래'이다. 이러한 일본음계는 민족의 언어를 없애고 의도적으로 침투시킨 제국주의 산물로 심지어 민중가요인 '포장마차'가 요나누기 음계로 되어 있다는데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밖에 솔라로데미로 구성돼있는 중국음계가 있다. 이와같이 외래음계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노래만하면 그만이지 노래가라'에 무슨 역사가 있는냐만 잘못된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민요, 아버지는 뽕짝, 누나는 가곡, 동생은 팝송을 즐기는 식의 이러한 중층화 현상은 지나온 우리가라에 역사가 숨

우정과 의리에 숨겨진 '더티플레이'



이 작품은 선거의 해를 맞은 우리의 정치현실을 연상시킨다.

연 / 극 / 평 ● 챔피온은 쉽 ●

70년대 초 미국의 정치상황을 풍자한 연극 '챔피온은 쉽'(제임스 밀러 작, 최홍을 연출)은 현대의 정치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전형적 인물들로 가득차 있다. 진실 없는 웃음과 권모술수, 보수적 권위주의, 무사안일로 가득찬 정치인의 진정으로 제정권을 시도하는 시장 조지, 그에게 정치자금을 대주고 공해산업에 투자하나 조지의 보수주의가 대중의 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까지도 감지하는 현실적인 감각의 사제가 딸 돈도 능력도 없

이 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여차하면 서민에게 정치자금을 대줄 생각을 하며, 또 그런 만큼 조지는 힘을 믿지 못한다. 두 챔피언처럼 조지와 필 사이를 오가면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던 제임스는, 조지 대신 자신이 출마할 땅을 차지하고 싶고, 결국 조지와 필의 담합에 의해 선거본부장직으로부터 멀러나는 신세가 된다. 결국로는 의리와 우정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이들의 세계에선 의리도 우정도 없고 냉혹한 현실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여유있어 보이지만 정신적

갈끔한 연출과 배우들 앙상블 돋보여 정치현실에 대한 노골적 풍자 미흡

으로 피폐하며 윤리적으로도 타락해있다. 상대 후보자에게 쫓기는 조지는 항상 불안하며 치밀을 잃고 있고 그의 아내는 남편관계가 문란하다. 제임스는 돈도 배경도 없어 자신만 뒤흔었다는 열등감에 시달려 조로해 있다. 필은 사업에만 매달려 수발에 없으나 아내부터 친구들까지 모두 자신을 돈줄로만 생각하는 세상살이가 허무하여 끝없는 소비와 문란한 여자관계와 같은 말초적인 쾌락으로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색깔로, 조지의 아내와도 놀아난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라는 냉혹한 현실을 위해 다시 손을 잡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그리듯 듯한 신화와 명분으로 치장하여 이들의 화해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잠깐 생각해봅시다 ⑤

교정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개강한지 한달도 안되어 교정이 어느새 주차장으로 변했군요. 각 단과대건물 앞은 물론이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공간의 여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차장으로 사용, 학교가 마치 자동차 전시를 해놓는 느낌입니다. 물론, 있는차 몰고다니는거야 멋쟁이(?) 마음이겠지만 넓지도 않은 우리교대에서는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는 고속도로는 아니지요. 비탈길을 생생 달려 내려오는 차를 보고 있으면 이따가 우리학교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말란법이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등록금이 올라 학기초만 되면 학교가 돈싸움으로 시끌벅적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백만원씩 하는 그것도 학생자가용들이 교내를 안방처럼 넘뜰하게 차지하고 있는 모양은 마치 이 사회의 모순된 '일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엔 하루에 만보이상 걷기운동도 있었습니다. 비좁은 우리의 공간문제 이제 우리 모두 나설때 입니다. <문화부>

'절레꽃' 등 대중가요 대부분 일본음계 건강한 노래는 사회인식에서 출발

그동안 풍물극, 민속놀이 등 전통 예술에만 치우쳐왔던 활동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이런 강좌는 만화, TV, 영상매체 등 분야가 다양하다. 강좌내용을 보면 선사시대의 미술에서 현대까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젊은이'를 위한 '한국미술사' 전통예술의 현장과 민속놀이를 알아보는 '전통예술강좌' '리얼리즘 문예이론의 형성'과 '발전' 원시문화에서 근대문화의 형성까지 각 시대의 특징적인 장르를 다루는 '한국 문학사' '한국역사교과' 그리고 새로운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만화의 흐름과 제작을 강의하는 '만화 창작교과' '영화로 보는 세계영화사' '한국근현대음악사'의 8강좌로 되어 있다. 이밖에 별도강좌로 '관소리 교실' '한국한시감상'도 있다.

문학탐시

동악인을 위한 문예교실 첫째 날 '인생과 예술'

본교 문예인들이 하나로 뭉쳐진 학내문학예술학생연합은 학생복지위원회와 함께 '일만 동악인을 위한 문예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나머지 소수 학생들의 점유율(?)을 여겨져 왔던 문예활동에 그야말로 일만동악인을 참여시키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문예교실은 다섯차례에 걸쳐 다채롭게 진행된다. 먼저 첫째날인 3월31일에는 소강당에서 '인생과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시인 김형수씨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에 대한 해설과 자주적 문예운동에 관한 내용을 구구적

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둘째날인 4월8일에는 '친구는 멀리 갔어도' 그리고 내일이 있다'로 잘 알려져 있는 정도상씨의 문학창작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현사회의 현실에 대한 문학학적 이해를 드룬다.

4월16일에는 중앙당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잠들지 않는 남도' '마른잎 다시 살아나' '칠의 노동자' 등 자신의 창작곡들을 직접 부르며 그곡에 대한 배경과 과정들을 이야기해준다. 이밖에 4월23일에는 영화상영이, 4월30일에는 올바른 놀이문화에 대한 연성수(전국노동자 문화예술 운동단체협의회 의장)씨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학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인으로 세우는데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광고페이지

20살 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 란제리 - 에띠앙

좋아하는 마음이 빨강색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파랑색이야 그래서 에띠앙은 빨강, 파랑

20살 감각의 색다른 아름다움에의 초대, 그리고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편안함까지

「스물, 스물하나. 이 시절 우리의 가슴은 하트가 된다. 솔직하기에, 신선하기에 우리의 가슴은 하나가 된다」 여자나 이 20살. 자기만의 멋을 강조하고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세대라 할 수 있겠지요. "속옷을 잘 입어야 진짜 멋쟁이"란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름답고 예쁜 나이 20살. 어떤 일에서건 열의를 아끼지 않으며, 독특한 개성을 내보이고픈 바로 그 20살 여성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내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란제리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부드러운 실(Simple) 함을 테마로 하는 촉감의 변화를 시도한 에띠앙입니다. 레이스 사용을 자제하고 선(線)을 중시한 절제미(節制美)와 겉옷과 잘 어울리는 대담한 컬러의 선택, 그리고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편안함까지 고려해서 만든 신세대 감각의 란제리가 에띠앙이죠. 에띠앙 / 그레오. 그 예쁜 나이가 내자신일 수도 있다는 색다른 정성으로 예쁘고 편하게 만든 것이 에띠앙이예요. 좋아하는 마음 빨강과 사랑하는 마음 파랑이 어우러져 농도깊은 패션 컬러에 잘 배색된 것이 에띠앙입니다.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잘 결집된 20살 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 란제리 - 에띠앙. 그래서 에띠앙을 빨강, 파랑이라 부르는가 봅니다. 강수진 25세 에띠앙 디자이너 90년 인태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에띠앙 사랑이야기 10>
하나, 좋아하는 마음이 아이스크림 같다면 사랑하는 마음은 은은한 향수같은거야
둘, 좋아하는 마음은 한방의 뜨거운 태양같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밤새 쌓이는 하얀눈이야
셋,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은 사랑을 선물로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붉은장미 한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밤이야
네, 좋아하는 마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말도 못하는거야
다섯, 좋아하는 마음이 크립쉬인 커피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블랙커피야
여섯, 좋아하는 마음이 빨강색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파랑색이야
일곱, 좋아하는 것은 손수건 적시며 이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뒤돌아 눈물짓는거야
여덟, 좋아하는 사람 편지엔 사랑한단 말 뿐이고, 사랑하는 사람 편지엔 그저 한숨뿐이야
아홉, 좋아하는 마음은 관속에 누우면 끝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지옥까지도 끌고 가는거야
어열, 좋아하는 마음의 시작은 귀로부터 시작되고,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눈에서부터 시작되는거야